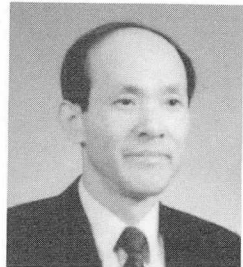


양돈경기 10월초순까지 낙관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1. 머리말

물가 당국의 추석물가 안정대책은 축산물의 체크 상품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안정에 총력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9월 10일 이후로 지육 kg 당 2천5백원선이 무너졌으니 이는 농림수산부와 지방 행정기관 등의 돼지 출하 독려로 어거지로 형성시킨 시세라고 보아야 한다.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지기 전에는 손으로 눌렀다 놓으면 원위치가 되게 마련이므로 오히려 추석직전의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수고들을 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자. 여차하면 수입하겠다는 것이 자꾸 신경을 건드리게 마련이다. 5자 붙은 날(5, 15, 25일)은 물가체크하는 날이니 시세가 하락되도록 출하하려는 결국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축 농가들이 이런 희생을 도외시 한다면 근시안적 행정관리들의 불장난에 초가집을 태울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요즈음의 양축농가(돼지)들의 심정임을 누가 모르랴.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권면하여 출하에 전력하는데 대하여 박수갈채를 보내야겠다. 10월호가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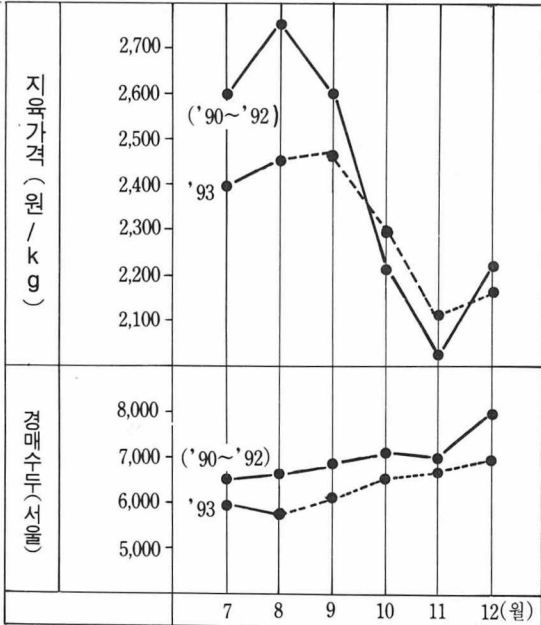
의 손에 들어가기까지는 앞으로 20여일이 남았는데, 8월달 사료 생산량도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추석대목은 10월호 월간지 만드는 것도 앞당겨야 하는 모양이다.

2. 추석 대목 호황되겠으나

예년 그러했듯이 대목 직전은 경기가 오히려 나빴던 것이 통례였고 행정당국에서도 출하 독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앞당겨 출하하였으나 금년 추석은 연휴가 길어 놓으니 정육점들은 장장 5일간(9.29~10.3)의 물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수요 물량이 폭주하게 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수입 우려로 조기출하 등 이미 많은 물량을 빼낸 상태가 되므로 올 추석전 경기는 매우 양호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10월 중순경부터는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패턴에서 역시 하향곡선을 그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임도 예견되는 바이다.

지난호에 제시한 바 있는 <표1>은 근년의 월별 추세이므로 특수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틀에

〈표 1〉최근('90~'92년)월별 동향 및 '93예상치



* 두수는 서울 3개 시장 하루 물량임. 점선은 예상치

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본다.

3. 대일 수출을 기대한다.

금년도 수출 장려금(두당 만원)이 행정서류 정리미비로 아직도 농가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농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처음 시작부터 충분한 홍보도 없이 하였던가 하면 수출업체는 농가계약을 서둘러서 물량확보에 급급하다 보니 사후 실무처리상에 행정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 많다 하여 축협은 축협대로 완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잡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TLC(잔류유해물질)검사 결과서, 수출 원료돈 구매 내역서 및 수출돈육 가공 내역서(자체가공, 계약가공), 돈육 수출면장과 PAC-

KING UST(물량 두수 명시), 잔여육 처리 현황 등을 이상 열거된 제반 서류들이 갖추어진 것을 수출업체나 수출육 가공업체에서 축협중앙회로 제시하여야 되는 것이나, 이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업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령뱅이끼리 자루 찢는 격으로 농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꼴도 있으니, 홍길동이 계약하고 계약자 사망, 그 아들이 대행한 것 등은 얼마든지 서류상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 당국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은 충분한 홍보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첫 시도이니 만큼 행정적 간소화로써 TLC검사를 필한 수출 규격 돈임을 인정하였으면 약속대로 농민의 손에 들어가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일해주는 공무원상이 아쉽다. 가장 책임이 큰 것은 수출업체들이다. 누가 더 먹을세라 밥그릇 차지하는데만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순수하게 자기들만 믿고 수출 규격돈을 출하한 일 외에 그 무슨 책임이 있는가 말이다. 자기들이 어느 가공업체에다 작업을 맡겼든 농민이 알 바 아니다. 수출 업체는 자기들이 서류미비로 자금을 못타게 된다 하여도 수출 지원금은 농민들에게 넘겨줘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것이 안될 경우는 업체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93년도 수출실적은 7월 말 현재 6,706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5% 늘어났다. 그 이유는 수출 장려금 지급이라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지금 일본의 돈육 시세가 좋아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엔고 현상에 의한 수출 여건이 좋은 점과 수출 보상금을 의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국내 양돈경기를 조금은 나아지게 작용시켜 준다면 매년 10월, 11월의 불황국면을 조금은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